

# 韓國學 古文獻資料 專門圖書館 建築計劃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Library Building for Preserving Ancient Documents of Koreanology

이근영(Keun-Young Lee)\*\*, 박지훈(Jee-Hoon Park)\*\*\*, 공순구(Soon-Ku Kong)\*\*\*\*

### 【초 록】

본 연구는 시설 프로그램, 면적 구성비, 공간 구획, 순환 시스템 등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해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건축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은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공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둘째, 자료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한다(39~56%). 셋째, 서고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하역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넷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면 각 사례별 공간구성은 자료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다.

### 【키워드】

고문헌, 전문도서관, 공간구성체계, 면적구성비, 건축계획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rchitectural planning of the library building for preserving ancient docu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spatial composition(facility program, area ratio, space zoning, circul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an outcome as follows. First, The facility program of the archives is composed with four kind functional area : collection area, user area, administrative/management

area, and service/public area : Second, through the case studies, it was proven that more space was given to the collection area such as the preservation part when compared to other areas(39~56%). Third, there are some traits foun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stack room of the specialized libraries, the location of the preservation department, and the existence of the loading and unloading area. Fourth, it shows that the organization is related to the movement routes.

### 【Keywords】

Research Library, Spatial Composition, Area Ratio, Architectural Plan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고서적 지류문화재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기록물 형태의 문화재는 그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록들을 통해 그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고문헌<sup>1)</sup>을 소장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시설은 부족하다. 물론 자료의 보존·관리와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공학석사(rudeguys@nate.com) (교신저자)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과정(neotrueman@nate.com)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부교수, 공학박사(ksk@wow.hongik.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09년 10월 28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12월 5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열악한 보존환경, 서고공간의 포화, 방재설비 한계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늘어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통된 과제였다.

최근 고문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학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고문헌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문헌을 보존하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보존시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아직 시설의 명칭의 통일이나 건축적 개념정립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역사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인 현실에 고문헌을 보존하는 시설에 대한 공간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고문헌을 보존하는 특수한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국내의 고문헌 특히 지류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시설의 공간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영역별 면적비율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국내의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고문헌 보존에 합당한 전문도서관의 건축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문도서관은 지식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도서관과는 차별적인 전문화된 정보와 특정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한 각종 기관,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문헌 전문도서관은 소장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서관과 더욱 차별화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조사를 통하여 고문헌의 열화요인과 보존환경, 보존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한 후, 국내·외 사례에 대한 평면분석, 동선분석, 면적구성비 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공간구성과 전체공간구성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 2. 고문헌 보존 전문도서관의 이론적 고찰

### 2.1 고문헌의 보존환경

#### 2.1.1 고문헌의 정의

전문연구자들조차 '고문서'와 '고문헌' 및 '지방사료'라는 용어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고문서 조사자나 연구자들이 대부분 역사학 전공자들이어서 자료의 내용파악에 치중하는 나머지 그 형태나 분류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대부분의 고문서 조사가 지방사 연구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굳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문헌 전문도서관에 소장되어 연구되는 사료의 유형은 고문서 이외에도 고도서, 족자류, 피모류, 서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료를 통칭하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전경목(2006)은 고문서학의 상위개념으로 고문헌학 또는 사료학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고문서학, 서지학, 금석학 및 고기록학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문서학은(협의의) 각종 고문서를, 서지학은 각종고서와 목판 및 활자 등을, 금석학은 각종 금석문과 탁본 및 현판 등을, 그리고 고기록학은 위에서 제외된 모든 기록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고기록학에는 글자로 기록되지 않은 구비문학 등도 포함되도록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sup>2)</sup>

다음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하면 고문헌은 각종 고문서, 고서, 목판, 활자, 탁본, 현판 등 고기록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1.2 고문헌의 열화 요인

고문헌과 같은 지류문화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료자체의 성분에 의해, 또 보존환경에 의해 약화되고 노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종이의 열화라고 한다. 지류의 열화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자료보존에 매우 도움이 된다. 지류 열화의 원인은 크게 물리적인 원인, 화학적인 원인, 생물적인 원인으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1) 고문헌에는 지류 이외에도 목판, 활자, 현판 등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의 고문헌 전문도서관은 지류자료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둔다.

2) 전경목, 2006.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방법론. 『영남학』, 9: 43-46.

〈표 1〉 고문헌학의 분류체계

구분(대분류)	명칭(중분류)	주요대상
고문헌학 (사료학)	고문서학	각종고문서
	서지학	각종 고서, 목판, 활자, 고인쇄술, 출판문화 등
	금석학	각종 금석문, 탁본, 현판 등
	고기록학	위 3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고기록(가사등을 비롯한 구비문학 등도 포함)

(1) 물리적 원인

물리적 원인에 의한 열화란 열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물리적 파괴에 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이다. 취급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료에 부담되는 힘은 자료내부에서도 일어난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일어나는 종이의 팽창과 수축, 책의 제본부분이 팽창이나 수축될 수 없을 때 오는 파괴, 책을 책장에 비스듬히 세워 책이 변형하는 것도 모두 물리적 원인으로 분류된다.

(2) 화학적 원인

종이의 화학적 원인에 의한 열화란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화학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야기되는 열화이다. 화학적 열화는 열에 의한 것, 빛에 의한 것, 산화에 의한 것, 산과 알칼리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열에 의한 열화

열에 의한 종이 열화의 극단적인 예는 화재에 의한 소실이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급격한 산화 및 탄화반응이다.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의 진행속도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온이 될수록 영향도는 커진다. 산화나 산, 알칼리에 의한 분해반응도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급속히 촉진된다. 자료를 뜨겁게 하는 원인으로 빛이나 조명에 포함된 적외선에 의한 가열을 들 수 있다. 특히 일광의 경우 창문유리를 투과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의해서도 온도상승이 일어난다.

② 빛에 의한 열화

빛에 의한 열화도 일종의 화학반응이다. 셀룰로즈 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 하면 그 일부가 변화하여 열화가 일어난다. 빛 중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함유한 자외선 영역쪽이 가시광선보다 더 큰 피해를 준다. 빛으로부터 지류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자료를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자외선 흡수필름을 설치하거나 커튼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특히 형광등의 빛에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필름을 하용하거나 자외선의 위험이 없는 형광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화에 의한 열화

산화에 의한 열화란 셀룰로즈가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서서히 변질, 분해되는 현상을 말한다. 셀룰로즈의 산화는 가성 소다 등에 의한 알칼리 처리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를 일으키는 셀룰로즈는 직쇄상의 결합이 끊어져 중합도의 저하를 일으켜서 섬유강도가 낮게 되어 종이 강도가 저하된다.

④ 산에 의한 열화

19세기 중반에 근대 제지기술이 확립되면서 대량의 종이기록물이 생산되었지만, 종이기록물이 급속히 열화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사이징에 사용된 알람에 의한 종이의 산성화로 결론지었다. 알람은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셀룰로즈의 중합도가 저하돼 섬유의 강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3) 생물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에는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에 의한 열화와 서적에 사용된 재료를 음식으로 하는 각종 벌레, 쥐 등의 동물에 의한 열화 등을 들 수 있다.

① 미생물에 의한 피해

미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양분이 되는 물질, 또한 그 것을 모체로 하는 포자가 필요하다. 양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종이나 재분할 때 사용되는 풀, 아교, 가죽 등이 있다. 미생물은 주로 지류의 표면이나 습기에 의해 생긴 빈틈의 내부에 성장한다. 미생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

하면 피해영역이 불어날 위험뿐 아니라 미생물의 분비물로 인한 오염이 생길 경우도 많다.

② 동물에 의한 피해

동물에 의한 피해는 주로 쥐에 의한 것이다. 쥐는 종이를 음식물로 하지는 않지만 종이를 갉아 없애거나 가죽이나 양피지 같은 제본 재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이기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충으로는 현재 10여종류가 알려져 있지만, 이들에 의한 피해의 정도는 가볍다. 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환경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온도와 습도의 적당한 유지, 서고 내 이물질의 제거, 정기적인 점검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점검을 통해 해충과 동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sup>

이상 지류문화재의 열화원인을 살펴본 결과 자료를 손상시키는 원인과 그 인자는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요인으로 빛, 습기, 온도, 공기, 동식물에 의한 피해와 천재지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든 물질을 수축 팽창에 의해 형상변화를 야기시키고 부패로 변질시키며 결국에는 양면적인 악화상태로 만들어 자료를 파실시키고 만다.<sup>4)</sup>

2.1.3 고문헌 보존을 위한 환경

(1) 서고의 위치

서고의 위치는 온·습도 관리상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방법성, 관리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료는 서고 내부로 반입되기 전에 반드시 전실을 거쳐야 한다. 서고에 반입되기 전 거치는 전실은 고문헌을 일정 기간 순응시킬 수 있는 예비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고는 가급적 지하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는 빛이 들지 않아 인공 빛을 유지해야하며 장시간의 인공 빛 노출은 지류문화재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하는 기계실, 보일러실 및 장시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습기에 노출되기 쉽고, 공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서고의 지상과 지하에 위치됨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5)</sup>

(2) 서고의 분류

서고에 수장하여 보존할 물품은 재질적 특성상 문서·인쇄물·지도와 같은 종이류와 사진·필름류·마이크로필름과 같은 필름류, 마그네틱 테이프·광디스크와 같은 광자기류로 구분할 수 있다. 고문헌 보존을 위한 서고환경은 일반 도서관의 서고와는 차별화된 환경을 요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이의 열화는 온도, 습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문헌 보존을 위해서는 박물관의 수장고와 같은 서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sup>6)</sup>

<표 2> 서고의 위치별 비교

구분	지하형	지상형(통계)
특징	- 15~19C말까지 많이 사용 - 적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안전 - 부분적 습도조절장치 사용	- 현재 많이 활용 - 적의 공격에 노출 - 보존환경의 완전통제
장점	- 자연광에 대한 차단시설이 필요 없음 - 향은 조절이 비교적 용이 - 자연인위적 재난에 안전 - 제한된 접근으로 보안성이 높음	- 습도조절에 유리 - 해충 및 곰팡이에 비교적 안전 - 공기의 오염도가 낮음 - 서고의 효율적 이용 - 기록물 운반이 비교적 용이
단점	- 습도조절이 어려움 - 미생물피해가능성 높음 - 홍수피해 - 공기오염도가 높음 - 자료운반에 불편	- 자연광의 차단시설 필요 - 향온유지가 상대적으로 불리

3) 일본도서관협회, 1997. 종이의 열화와 자료보존. 『기록보존』, 제10호 『번역부록편』, 184.  
 4) 임채진, 1999. 박물관 수장환경의 개념설정과 설계지표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21: 131.  
 5) 김 응, 2005. 『기록보존소 건축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9.  
 6) 임채진, 앞의 논문, 132-133.

〈표 3〉 문화재 보존 최적 온·습도

제품	최적온도(℃)	최적 상대습도(%)	비고
목제품(출토직후)	15~20	80	보존처리 전의 일시적인상태
목제품(보존품)	15~20	60	건조 상태가 심한 것은 18~20℃, 65% 이하
금속류	18~20	40	녹 및 염분으로 오염된 것
토석류	20~22	40~60	-
섬유류	22	60	-
고문서류	16~24	45~60	-
유화	16~18	58~63	-
철기류	16~25	65~75	-

〈표 4〉 지류유물의 온·습도 조건

유물의 재질	온·습도 조건
지류 유물	지류유물의 가장 큰 손상은 퇴색이며 이는 광선이나 공해가스 등의 영향도 있으나 특히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즉, 습도가 광화학반응이나 산화성 가스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하절기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시기에 지류 유물들이 울퉁불퉁하게 휘어지고 구겨지며, 동절기에는 구부러지고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류의 속성이 습도가 높을 때 팽창하고 습도가 낮게 되면 수축하기 때문이다. 지류는 흡습성 물질이기에 항상 상대습도를 일정 범술기에 유지시켜주고 내부의 습도 함유량을 조절하여 주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의 수장물품이 과거의 문화유산인 만큼 근·현대에 개발된 정보전달 및 보존매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근·현대에 개발된 정보저장 매체들 또한 그 보존환경에 있어 일정한 온·습도의 유지, 공기 중의 불순물 차단, 화재와 수해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기준이 개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박물관·미술관의 서고를 보존환경성 측면에서 환경요소별로 비교하면 〈표 5〉와 같다.<sup>8)</sup>

박물관 미술관의 서고와 도서관의 보존서고의 보존환경이 거의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질별 보존조건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sup>9)</sup>

〈표 6〉에서 나타나는 보존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고의 벽은 단열, 차폐효과를 상승시켜 항온·항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중벽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기기록물 보존서고는 전자기록에 의한 자료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벽면, 천정, 바닥에 전자기와 차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서고의 수용 규모 및 보존 효율성

서고의 크기는 고문헌의 종류·양을 고려하여 크기 및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가 적을 때는 보존환경이 유사한 기록물과 같이 조닝하는 것이 좋다. 서고

〈표 5〉 도서관보존서고·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환경요소별 비교

환경요소	박물관	도서관 보존서고		비고
	미술관	종이류	마이크로필름	
일정한 온·습도 유지	○	○	○	공조설비, 조습관계
보존공간의 pH(중성)	○	○	×	마감재의 pH
유해가스와 차단	○	○	○	불투습 시공
분진과의 차단	○	○	○	공조설비 필터링
보존장소에 사용하는 재료의 휘발 유해물질 미방출	○	○	○	마감재의 환경성
내화저장실에서의 보존	○	○	○	이중콘크리트벽
방수장치, 인화방지	○	○	○	가스소화설비

7) 강신모, 2000. 기록물 보존서고로서의 서고의 기능과 역할. 『기록관리보존』, 통권제5호, 『한국기록관리협회』, 12: 49-50.  
 8) 이흥규·정낙현, 2008. 보존처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기록물보존소의 필요시설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6): 103.  
 9) 위의 논문, 103.

〈표 6〉 소장자료 종류에 따른 분류 및 보존조건

서고	보관자료	온도	상대습도	
일반서고(종이류)	문서·도면·카드·대장 등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21℃±1	45%±5	
사료서고	현판, 목판 등을 보존하는 서고	20℃±1	45%±5	
필름서고(필름류)	흑백	마이크로필름·흑백필름·사진을 보존하는 서고	18℃±1	30%±5
	컬러	컬러사진·필름·영화필름 등을 보존하는 서고	-4℃±1	30%±5
광자기기록물서고(광자기류)	CD·DVD·LD·자기테이프 등을 보존하는 서고	18℃±1	30%±5	

의 크기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sup>10)</sup>

〈표 7〉 서고의 크기에 따른 특징

크기	특징
대·중형	유효사용 면적이 넓다 서가배치가 편리하다 방화 및 서고관리면에서 소형서고 보다 불리하다. 면적기준 - 대형:300㎡ 이상, 중형: 150~300㎡
소형	중요기록물의 보관에 적합 방화·방범장치 설치용이 관리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유효사용으로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면적기준 - 150㎡ 이하

고문헌을 보존하는 서고는 기증에 의한 사료의 증가에 따른 소요공간 발생과, 소장자료의 보존이라는 기록 보존소적 성격에 의해 연면적 대비 수장고의 비율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증·기탁으로 인해 자료의 양은 점점 증가하므로 수장고 증축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 서가의 특성

서가는 고문헌의 모양, 크기 등에 관계없이 모두 배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체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재질

은 견고성, 안전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곰팡이 등의 미생물 방지 및 공기 내부오염원 농도감소 등을 위해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외벽에 부착시키지 않아야 하며, 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적절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은 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미끄럽지 않고 청소가 쉬우며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3. 국내·외 사례의 공간구성 및 평면 분석

본 연구는 고문헌을 소장한 국내·외 사례 7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고문헌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장서각,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을 사례로 선정하였고, 해외사례는 일본의 공문서관중 고문헌을 포함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공문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국내사례의 경우 2008년 10월에서 12월 간 현장답사와 홈페이지, 연감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 국립공문서관 2008년 10월 츠쿠바분관을 방문하였으며, 그 외 사례는 홈페이지 및 연감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현황 및 분석자료 항목은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조사대상시설의 일반현황 및 분석자료항목

	명칭	주요현황					분석자료 항목					
		개관 년도	연면적 (㎡)	시설 규모	서고규모 (㎡)	서고실 (室)수	건립 방식	설립 주체	웹	연감	도면	방문
국내 사례	장서각	1981	8117.0	지하1층/지상2층	1125	6	신축	국립	●	●	●	●
	규장각	1989	9529.4	지하1층/지상4층	2783	5	증축	국립	●	●	●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2007	9630.0	지하3층/지상3층	6821	10	신축	국립	●	●	●	●
해외 사례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1998	11250.0	지상3층	7290	14	신축	국립	●	●	●	●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	1993	9956.0	지하1층/지상4층	3189	8	신축	현립	●	●	●	
	아키타현공문서관	1993	12445.7	지하1층/지상4층	5238.5	4	신축	현립	●	●	●	
	오키나와현공문서관	1995	7757.5	지하1층/지상4층	325.2	11	신축	현립	●	●	●	

10) 위의논문, 103.



### 3.1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소요공간

〈표 9〉의 조사대상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기능영역을 업무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영역은 자료의 보존을 수행하는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핵심영역으로 하역영역,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이용자영역은 자료를 이용하는 열람, 전시, 교육/집회 영역과 연구원들이 이용하는 연구 영역으로 세분된다. 사무/유지관리영역은 사무관리영역과 유지관리영역으로 각각 세분된다.

### 3.2 국내·외사례의 영역별 면적 및 구성비 분석

#### (1) 국내사례 영역별 면적 및 구성비 분석

국내사례의 영역별 면적과 구성비율을 분석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국내사례의 전체적인 기능별 면적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료영역이 31.9%~56.9%의 면적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도서관 기준에 의한 일반적인 도서관의 면적 구성비율은 자료공간이 연면적의 40%, 이용공간이 연면적의 30%, 직원공간이 연면적의 10%, 공유공간이 연면적의 20% 인점을 감안하면 규장각을 제외한 장서각과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의 자료영역의 면적비율은 기준안의 면적비율을 초과하였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성격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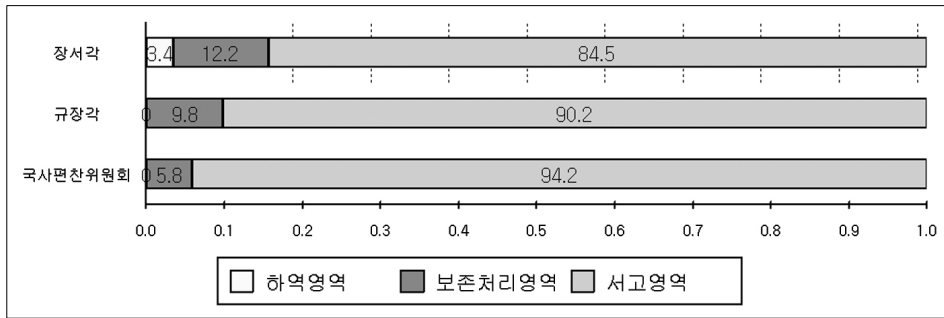
하역영역은 국내사례 중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자료의 반입은 직원용출입구를 이용하며, 옥외주차장에 인접한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자료의 반입이 이루어진다. 보존처리영역은 자료의 보존처리, 복원처리, 정리, 마이크로필름화의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자영역과는 차단된 곳에 조닝(Zoning)되어 있다. 서고영역은 자료영역에서 가장 큰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영역의 면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용자영역은 16.8%~22.9%의 구성비를 보인다. 한 국도서관기준의 이용공간의 비율보다 8~13%가량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료영역의 면적비율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면적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영역의 세부구성기능으로는 연구기능, 열람기능, 전시기능, 교육집회기능으로 구분되며 사례별로 이러한 세부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장서각의 경우 전시기능과 교육집회기능이 없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연구기능이 없다. 이는 국내사례가 각 기관에 속한 전문도서관이고, 국내사례에 없는 기능은 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사료관이 아닌 별도의 국학관에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이용자영역의 세부 면적 구성은 차이를 보인다. 사무/유지관리영역과 서비스/공용부분의 면적구성비는 7.1%~13.9%, 17.1%~19.4%의 구성비를 보인다.

〈표 10〉 국내사례의 영역별 면적과 구성비율

구분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		합계
	하역 (㎡,%)	보존처리 (㎡,%)	서고 (㎡,%)	연구 (㎡,%)	열람 (㎡,%)	전시 (㎡,%)	교육집회 (㎡,%)	사무관리 (㎡,%)	유지관리 (㎡,%)	서비스 (㎡,%)	공용 (㎡,%)	
장서각	152.5	552.5	3831.4	524.7	827.6	0	0	43.6	531.7	596	963.8	8023.8
	1.9	6.9	47.8	6.5	10.3	0	0	0.5	6.6	7.4	12	100
	4536.4			1352.3				575.3		1559.8		
	56.6			16.8				7.1		19.4		
규장각	0	364.5	3359.4	1090.3	396.6	1182.1	179.7	231.1	1094	428	1203.7	9529.4
	0	3.8	35.3	11.4	4.2	12.4	1.9	2.4	11.5	4.5	12.6	100
	3723.9			2848.7				1325.1		1631.7		
	39.1			29.9				13.9		17.1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0	319.6	5161.9	0	823.1	552.2	255.4	188.8	565.2	45.8	1717.9	9629.9
	0	3.3	53.6	0	8.5	5.7	2.7	2	5.9	0.5	17.8	100
	5481.5			1630.7				754		1763.7		
	56.9			16.9				7.9		18.3		

〈표 11〉 자료영역의 면적구성비(국내사례)



(2) 해외사례 영역별 면적 및 구성비 분석

해외사례의 영역별 면적과 구성비율을 분석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해외사례의 전체적인 기능별 면적구성비를 살펴보면 서고영역이 44.8%~54.9%의 면적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집된 자료를 보존년한에 따라 보존하거나 파기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영역의 세부 구성기능을 살펴보면 하역영역과, 보존처리영역, 수장영역이 있다. 하역영역은 국내사례와는 달리 해외사례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보존처리영역은 자료의 보존처리, 복원처리, 정리, 마이크로필름화의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자영역과는 차단된 곳에 조닝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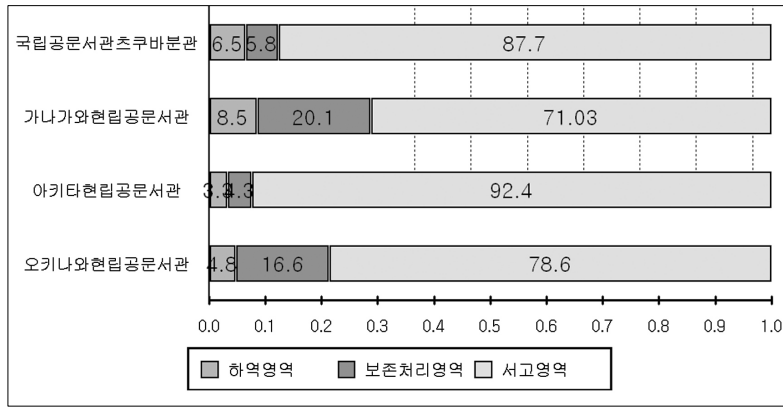
다. 서고영역은 자료영역의 세부 기능 중 가장 큰 면적비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영역의 세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이용자영역은 3.1%~22.3%의 구성비를 보인다. 국내 사례와는 달리 해외사례에는 연구기능이 없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보존에 중점을 둔 국내 사례와의 공통점이 있지만 연구기관에 속한 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이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설립목적과는 달리 보존에 우선을 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영역의 면적구성비가 가장 낮은 사례는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으로 일본 국립공문서관 본관의 수장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자료의 수장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의 이용자영역은 홀

〈표 12〉 해외사례의 영역별 면적과 구성비율

구분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		합계
	하역 (㎡,%)	보존처리 (㎡,%)	서고 (㎡,%)	연구 (㎡,%)	열람 (㎡,%)	전시 (㎡,%)	교육집회 (㎡,%)	사무관리 (㎡,%)	유지관리 (㎡,%)	서비스 (㎡,%)	공용 (㎡,%)	
국립공문서관 츠크바분관	402	357.2	5411.7	0	105.3	51.8	188.8	234.6	2510.8	538	1449.8	11250
	3.6	3.2	48.1	0	0.9	0.5	1.7	2.1	22.3	4.8	12.9	100
	6170.9			345.9				2745.4		1987.8		
	54.9			3.1				24.4		17.7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382	900.4	3189.9	0	636	255.5	386.8	336	939	465	2465.4	9956
	3.8	9	32	0	6.4	2.6	3.9	3.4	9.4	4.7	24.8	100
	4472.3			1278.3				1275		2930.4		
	44.8			12.9				12.8		29.5		
아키타현 공문서관	187.3	246.5	5238.5	0	2215.6	116	446.5	415.7	866.7	86.3	2626.6	12445.7
	1.5	2	42.1	0	17.8	0.9	3.6	3.3	7	0.7	21.1	100
	5672.3			2778.1				1282.4		2712.9		
	45.6			22.3				10.3		21.8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198.4	681.8	3235.2	0	501.1	123.2	415.5	510.9	511.1	253.6	1327.5	7758.3
	2.6	8.8	41.7	0	6.5	1.6	5.4	6.6	6.6	3.3	17.1	100
	4115.4			1039.8				1022		1581.1		
	53.1			13.5				13.2		20.4		

〈표 13〉 자료영역의 면적구성비(해외사례)



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실, 열람실, 회의실의 세부 구성 요소가 있으며, 그 구성비를 최소화하여 서고 및 유지관리영역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영역 면적구성비가 가장 큰 아키타현 공문서관은 열람영역이 가장 큰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과 공문서관의 복합시설이기 때문이다. 열람영역은 도서관 열람실과, 공문서관 열람실, 공문서관 특별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영역, 서고영역 역시 도서관과 서고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사무/유지관리영역의 면적구성비는 10.3%~24.4%로 그 구성비가 가장 큰 사례는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이다.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은 서고 점검로에 공조기를 설치하여 서고의 향온습유지에 역점을 두었고, 지상형 서고의 외곽에 점검로를 둬서 외기와의 차단과 충격으로부터 서고를 보호하는 완충기능을 한다. 츠쿠바분관의 유지관리영역의 면적이 큰 것은 서고외곽의 점검로의 면적 때문이다.

서비스, 공용부분의 면적은 17.7%~29.5%로 나타나며 가장 작은 면적구성비를 보이는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은 기능별 조닝을 분석하면 같은 기능을 가진 실의 수평적 조닝과 연계기능에 대한 수직조닝으로 동선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공용공간의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 3.3 국·내외사례의 유형별 특징분석

국내외 사례의 평면 및 동선체계를 분석하면 사례별 공간구성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하역영역의 비교

국내외 사례의 자료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시설은 하역기능을 가진 실이 해외사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하역공간이 없는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은 2003년 이후 개관한 시설이다. 서고의 기능이 일반도서관보다 더욱 강화된 시설임에도 하역영역이 설치되지 않아 규장각은 주출입구를 이용한 자료의 반입, 국사편찬위원회는 옥외주차장 측 관리자 출입구의 경사로를 따라 자료의 반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장비는 지하층 상부를 오픈한 장비반입구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장비의 반출입을 계획하였다. 향후 증축계획 또는 개축계획을 통하여 하역영역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표 14 참조).

〈표 14〉 하역영역의 설치현황

하역영역의 유무	국내사례	해외사례
하역영역 설치	장서각(지상1층)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지상1층)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지하1층) 아키타현 공문서관(지상1층) 오키나와현 공문서관(지하1층)
하역영역 미설치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

(2) 서고 위치 비교

국내사례의 경우 서고는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있다. 국내 사례 중 혼합형의 구성을 보인 장서각 역시 전반적인 구성은 지하에 더 많은 서고 비율을 두고 있다. 규장각의 경우 지상1층에 서고가 설치되어있지만 경사로를 이용한 건물의 배치로 인해 서고부분은 지면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해외사례의 경우 지하에 서고를 둔 지하형은 없었으며, 혼합형으로 조사된 가나가와현 공문서관과,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역시 지하에 임시보관 또는 중간보관의 서고와 같은 임시적인 서고를 두고 지상서고에 더 많은 비율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5 참조).

우리나라에 지하형 서고가 많은 이유는 전쟁시 폭격의 위협으로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류 보존시설은 지상형서고가 많이 계획되는 추세이다. 향후 서고계획 시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3) 국내·외 사례별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보존처리 영역은 자료의 반출입과 서고 영역의 중간

에 위치한 영역으로 두 기능영역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그에 따른 동선이 매우 중요하다(표 16 참조).

국내외 사례의 보존처리 영역은 평면내 조닝된 경우와 층간 구획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내 집중형은 국내사례의 장서각과 규장각, 해외사례의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과 오키나와현 공문서관이 있다. 집중형 사례의 보존처리영역은 서고 또는 사무영역과 같이 조닝되어 있으며, 하역영역과는 수직동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층간 분리된 사례는 국내사례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과 해외사례로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과 아키타현 공문서관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과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은 수직동선과 함께 층간 조닝하여 자료의 동선을 최소화 하였고, 아키타현 공문서관은 도서관 보존처리영역과 층간으로 분리하였다. 보존처리영역의 위치는 동선계획상 자료의 이동에 따라 그 배치가 달라진다. 우선적으로 평면상에 하역영역과 보존처리 영역, 수장영역을 함께 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계획여건상 층간구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직동선과 인접하여 자료영역의 동선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5〉 대상시설의 서고의 위치 비교

서고의 위치	국내사례		해외사례	
지하형			-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지상형	-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아키타현 공문서관
혼합형				
	장서각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가나가와현 공문서관

〈표 16〉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위치	국내사례		해외사례	
집중형				
	장서각	규장각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층별분산형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아키타현 공문서관

#### 4. 국내·외 사례의 공간구성체계 분석

##### 4.1 국내사례의 공간구성체계 분석

조사대상 시설의 평면 및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공간구성은 개략적으로 자료의 흐름에 순응하는 공간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문헌 도서관의 4가지 기능은 평면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보존에 중심을 둔 자료영역과 자료의 이용에 중심을 둔 이용자 영역, 시설의 관리에 중심을 둔 사무/유지관리영역, 시설의 서비스 및 복도, 홀 등을 포함하는 공용부분의 4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사례별 편차는 있지만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영역별 세부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표 17 참조).

국내사례의 경우 세부기능으로 하역영역과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 전시영역, 열람영역, 교육집회영역,

연구영역, 사무영역, 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의 경우 전시기능과 교육집회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하역영역이 설치되지 않았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의 경우 연구영역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사편찬위원회의 본동인 국학관에 연구영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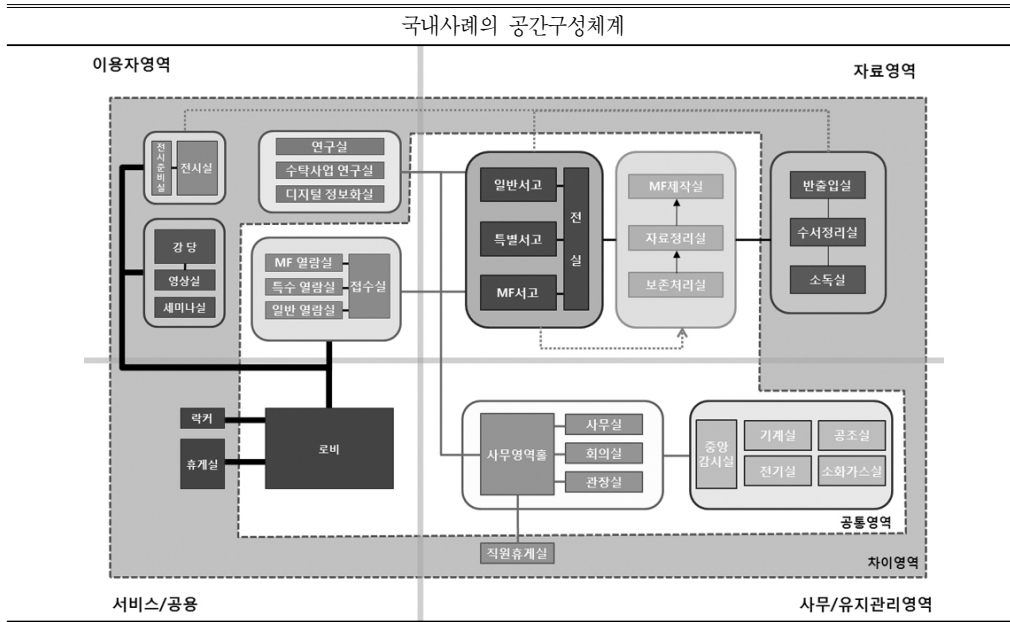
국내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비교하여 각 사례의 공통기능과 차이기능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국내사례의 분석결과 자료의 흐름과 공간구성체계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사례의 경우 각 영역별로 공통적인 영역과 차이를 보이는 영역으로 분류하면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 열람영역은 국내사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고 전시영역, 연구영역, 교육집회영역은 각 사례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표 17〉 국내사례의 세부기능 현황

구분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		서비스/공용
	하역영역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	전시영역	열람영역	교육집회영역	연구영역	사무영역	유지관리영역	
장서각	○	○	○	×	○	×	○	○	○	○
규장각	×	○	○	○	○	○	○	○	○	○
국사편찬위원회사료관	×	○	○	○	○	○	×	○	○	○

〈표 18〉 국내사례의 공간구성체계



하역영역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시실과 교육집회 관련은 장서각에 설치되지 않았다. 연구영역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2 해외사례의 공간구성체계 분석

해외사례의 전체적인 기능은 국내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흐름에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사례의 세부기능에 관한 현황은 〈표 19〉와 같다.

해외사례의 경우 각 사례별 공간구성에 관한 분석결과 연구영역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외사례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문서관이며, 고문헌을 통한 역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내사례 전문도서관에 비하여 해외사례는 연구의 목적보다는 자료의 보존에 중심을 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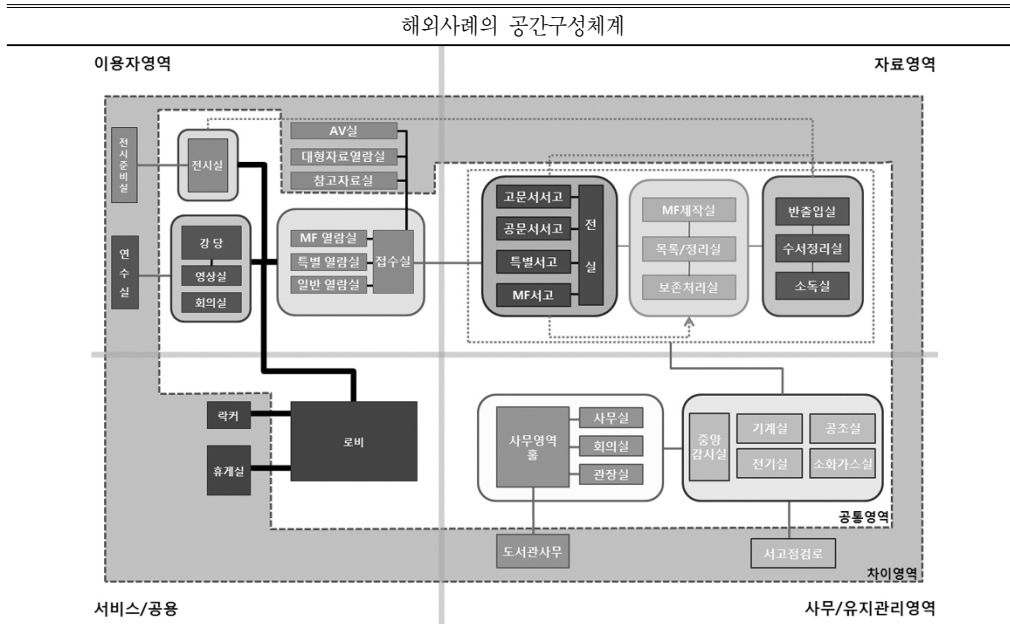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는 기능영역 유무의 차이 없이 전반적인 고른 분포를 보인다. 다만 세부 구성실은 공통부분과 차이부분이 존재하며, 각 영역에 특화된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의 경우 이용자영역, 즉 전시와 열람, 교육집회의 기능을 하는 세부 구성이 있지만, 그 기능을 최소화 하고 서고 외곽에 유지관리영역을 둬서 버퍼존, 공조장치 설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서고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열람영역에 있어서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은 열람실을 일반열람실과 대형자료열람로 구분하였고, 오키나와현 공문서관은 일반열람실과, 특별열람실, 참고자료실로, 아키타현 공문서관은 공문서관 열람실과 도서관 열람실로 구분하여 각 시설의 상황에 맞는 공간구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 각시설의 세부구성을 공통영역과 차이영역으로 구분한 공간구성체계는 〈표 20〉과 같다.

〈표 19〉 해외사례의 세부기능 현황

구분	하역영역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	전시영역	열람영역	교육집회영역	연구영역	사무영역	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용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	○	○	○	○	○	×	○	○	○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	○	○	○	○	○	×	○	○	○
아키타현 공문서관	○	○	○	○	○	○	×	○	○	○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	○	○	○	○	○	×	○	○	○

〈표 20〉 해외사례의 공간구성체계



### 4.3 국내의 사례의 공간구성 체계 비교

국내·외 시설의 공통영역과 차이영역을 비교하면 먼저 국내사례의 경우 차이영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하역, 전시, 교육집회, 연구와 같은 세부 기능을 가진 실이며 세부 구성실의 미설치가 아닌 하역영역, 전시영역, 교육집회영역, 연구영역과 같은 영역 자체의 부재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해외사례의 경우 차이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는 세부 구성실이며, 각 사례의 세부구성요소에 관한 특화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는 자료에 영향을 받으며, 자료의 흐름에 의해 그 공간구성체계가 형성된다. 자료의 보존에 관련한 자료영역, 자료의 이용에 중점을 둔 이용자영역,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설인 사무영역과, 유지관리영역. 그리고 서비스/공용부분은 각 세부 기능으로 분화된다. 이러한 분화 또한 자료의 흐름에 맞추어 각 영역의 조닝이 형성된다.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의 경우 자료영역의 공간구성체계는 하역영역부터 서고영역까지의 자료의 이동에 맞추어 수직동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평면분석을 통하여 츠쿠바 분관 외에도 대부분의 사례들이 각 영역별 조닝을 통하여 자료의 흐름에 따라 평면 또는 층별 조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은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공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자료영역은 하역영역, 보존처리영역, 서고영역으로 구성되며, 이용자영역은 연구, 열람, 전시, 교육집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유지관리영역은 사무관리와 유지관리영역으로 구성된다.

둘째,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서고와 보존처리영역을 포함한 자료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사례의 면적구성비의 평균은 자료영역이 50.6%, 이용자영역이 21.5%, 사무/유지관리영역이 9.8%, 서비스49.3%, 이용자영역이 13.1%, 사무/유지관리 영역이 15.3%, 서비스/공공부분이 22.2%의 면적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료영역면적은 전체면적의 39~56% 정도로 편차가 큰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모기관과의 업무담당의 정도에 따라 연구영역과 전시/교육영역의 비율 편차

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의 구성비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장자료의 양과 모기관의 설립목적에 의해 면적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고문헌 전문도서관은 서고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하역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몇가지 특성을 보인다. 먼저 서고의 위치가 지상형, 지하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계획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보존처리영역의 위치는 자료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며 각 서고영역, 하역영역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평면적으로 집중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수직동선과 연계하여 보존처리영역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 사례 중 장서각과 규장각은 하역영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 하역영역은 자료의 반출입구이며 자료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 단계이므로 향후 증·개축 계획을 통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면 각 사례별 공간구성은 자료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으며, 그 흐름에 따라 각 기능 및 세부 구성실이 조닝된다.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공간구성체계는 이러한 자료의 흐름에 따른 조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료영역과 이용자영역의 기능적 구분을 명확히 하여 두 영역사이에 보안체계를 적용시켜 동선을 통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문헌을 보존하는 도서관의 공간구성체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사례연구를 통한 공간구성체계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국내·외 고문헌 보존시설의 공간구성체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건립시 설계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특수한 시설인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국내사례가 많지 않아 사례조사 대상의 수가 한정되고 공간구성체계 분석 이후 규모설정단계에서 자료의

보관법, 정리법, 서고밀도 등의 기준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규모계획 및 면적비율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폭넓은 표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봉사대상인구별 또는 소장자료의 양과 관련된 규모별 공간구성체계를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신모, 2000. 기록물 보존서고로서의 서고의 기능과 역할. 『기록관리보존』, 5: 49-50.

김용근, 1985. 산업체 정보관리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연구. 『정보관리연구』, 18: 1-21.

김웅, 2005. 『기록보존소 건축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사공철 등편, 1986.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사공철,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신종순, 1995. 기록물의 복원이란. 『기록보존』, 8: 71-85.

이흥규, 정낙현, 2008. 보존처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기록물보존소의 필요시설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6): 99-106.

일본도서관협회, 1997. 종이의 열화와 자료보존. 윤대현 옮김. 『기록보존』, 10: 179-207.

임채진, 1999. 박물관 수장환경의 개념설정과 설계지표에 관한연구. 『실내디자인』, 21: 129-138.

전경목, 2006.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방법론. 『영남학』, 9: 39-75.

Young, Heartsil,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Associ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